

#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 추진”

### 박성일 완주군수, 주민대책위·협의회·SPC와 공동 기자회견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31일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대책위, 완주협의회, SPC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테크노

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을 산업단지 계획에서 제외 시키겠다”며 사실상 백지화 의지를 표명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테크노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리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환경청과 전라북도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2만톤 미만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오늘 함께한 주민대책위와 협의회, 완주테크노밸리(주)와 긴밀히 협력해 폐기물 매립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새만금환경청과의 협의 절차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폐기물매립장을 제외하는 계획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 대책 등을 향후 테크노밸리(주) 및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은 입장발표와 함께 발 빠르게 테크노밸리(주)에 폐기물발생량 재산출과, 산업단지 계획변경 추진 등을 협조 요청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위해 주민대책위, 완주협의회, SPC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제시, 기해년 해맞이 행사 힘찬 출발

### 성산공원에서 시민 300명 참석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을 맞아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2019 기해년 해맞이 행사를 1일 성산공원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제문화원(원장 김진유)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김중회 국회의원, 온주현 시장의 장, 김효순 교육장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민선7기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벽골제도농악단의 새해 새벽을 여는 축하 풍물공연으로 시작돼 김진유 문화원장의 새해 덕담과 박준배 김제시장, 김중회 국회의원, 온주현 시장의 새해 희망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지평선학당 출신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된 김제여고 3학년 김세림 양의 새해 희망메시지 낭독, 각계각층 시민들의 새해소망을 청취한 후 일출을 바라보며 시민들의 소망을 적은 소원지를 풍선에 매달아 날리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김제문화원에서는 새벽부터 행사장

을 찾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차, 군고구마, 떡국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나눔의 정을 실천해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2019년 새해에는 다 함께 열어가게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실현하여 민선7기 궁극적 목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의 초석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순창군, 올해도 스포츠 마케팅 올인

### 지난해 145억원 직·간접 경제 효과 거둬

순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마케팅의 메카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창군은 지난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145억원의 직·간접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KUSF 대학정규 U-리그 왕중왕전을 끝으로 지난해 모든 스포츠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1개 종목 45개 대회를 유치하고, 179개팀이 전지훈련을 하는 등 연인원 10만373명이 방문해 145억원의 직·간접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스포츠대회는 테니스 15개, 정구 14개, 야구 2개, 유도 3개, 배구 1개, 검도 1개, 배드민턴 1개, 궁도 3개, 기타 5개 등이다.

전지훈련팀은 정구가 167개 팀으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 7개팀, 역도 4개팀, 장애인사이클 1개팀 등이다. 순

창군은 군청 실업팀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팀이 포진되어 있다. 실력 또한 전국 상위권이라 순창군이 정구팀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중 하나다.

또한 실내구장 8면을 확보한 것도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2017년에도 44개 대회와 120팀 2만3,458명(연인원 9만2,306명) 규모의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정구종목 개최와 종합 1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2회 개최 등 45개 대회와 179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인정받아 제4회 스포츠마케팅어워드에서 2018 지방자치단체부분 분상 수상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완주 인터푸드페스티벌 성료

### 3000여명 관광객들 찾아

맛있는 겨울축제 완주군의 인터푸드페스티벌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성료됐다.

작년 12월 31일 완주군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인터푸드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에는 3000여명이 찾아 완주의 겨울 음식을 마음껏 즐겼다. 특히 인터푸드페스티벌은 완주농산물을 이용한 DIY요리를 만들어 화덕에 구워먹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화덕에서는 꼬치뿐만 아니라 가래떡을 구워먹고 모래 속에서 찾은 군밤과 고구마를 직접 구워서 먹는 놀이와 병행하면서 캠핑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각족단위의 관광객들은 화로 앞에 둘러앉아 추억의 음식을 나누고 새해 소원도 빌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매시간 마다 모라모라 잘 익은 따뜻한 우리 밀 찜빵을 나누기도 했다. 총 2019개의 찜빵은 새해의 소망과 더불어 참가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2019개의 찜빵에는 금반지가 숨겨져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우기 충분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는 세시 풍속한마당으로 전통놀이를 즐기며 놀이에서 획득한 체험점으로 먹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만끽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완주의 관광명소와 완주농산물을 활용해 화덕에서의 체험 놀이 등을 즐기는 새로운 콘셉트의 확장성을 시도했다”며 “지속가능한 축제 개최로 완주군에 활기를 불어넣어 군민은 물론 외부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도내 기관장 신년사

## “시민의 의견 귀담아 듣겠다”

### ▶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힘차게 출범한 제8대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소중히 받들고, 시민의 곁에서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시민 한분 한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민복지과장은 “명상숲 조성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학습 및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교육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올해 건강보험료 평균 3.49% 인상

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2019년도에 건강보험료가 평균 3.49% 인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24%(2018년)에서 6.46%(2019년)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 당 작년 183.3원에서 올해에는 189.7원으로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5.3%(1.13%p)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 배경에 대해 공단측은 건강보

험 등 보장성확대 즉 임의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노소모성재료 급여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적용확대, 등재비 급여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남원지사 063-630-212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벽골제이리랑사업소는 2일부터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 벽골제관광지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 매주 월요일 휴관

벽골제이리랑사업소(소장 김진수)는 많은 관광객이 벽골제관광지를 방문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2일부터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벽골제를 찾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재미있게 즐기고 아이 및 어른, 커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아이용 5대, 어른용 5대, 커플용(2인용) 5대를 준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헬멧 20개도 비치했다.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 벽골제관광지 안내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벽골제이리랑사업소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벽골제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놀이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수 벽골제이리랑사업소장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벽골제관광지에서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즐길 거리 및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고 사계절 오감만족 관광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임실군, 마을만들기 20억 추가 투자

### 56개 마을공동체 조성키로

임실군이 올해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에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20억원을 들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작년 자체 마을사업인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와 전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등 마을만들기 44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했다.

임실군은 올해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 56개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삼계면 두월마을에 5억원을 들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촌면 전전마을에 10억원을 투입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착수한다. 또 전북도가 작년 신규 사업으로 처음 공모한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에도 운안면 선거마을이 선정돼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마을 관련 핵심시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2019년을 임실군이 행복하고 농촌공동체가 살아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김제시,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 모집

김제시는 오는 4일까지 2019년도 명상숲 조성사업을 실시할 관내 학교를 모집한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 운동장 자투리 공간, 학교 담장 경계 공간이나 수목이 없는 나대지 공간 등을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로 폐교대상 또는 분교 등 명상숲 조성 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 및 기존 명상숲(학교숲)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되며, 1월 4일까지 김제시청 공민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접수된 학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1월 중에 대상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민복지과장은 “명상숲 조성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학습 및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교육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순창군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설치

순창군이 고추장민속마을과 섬진강오토캠핑장 등 관광지 2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관광객과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치작업은 지난해 5월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18년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순창군과 한국관광공사, SKT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 와이파이를 새로이 설치했다.

총 사업비 4천만원(군비1,08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말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통신망 점검을 거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했다.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해당 전자기기에서 와이파이를 클릭해 ‘Korea Free WiFi’를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무선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에도 일품공원, 작은영화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올해 역대 최대

순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확보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와 관련 군은 2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시설개선)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단, 그토교체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점의 직식테이블(의자, 인테리어 포함) 지원, 사기, (도)자기, 스테인레스 등 친환경 그릇 교체사업을 새롭게 지원해 순창군 요식업의 식탁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화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소상공인이면 된다. 단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 해당된다.

황송우 군수는 “식당은 청결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맛이 좋아야 한다”면서 “군은 외국인과 신세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이들의 취향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식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